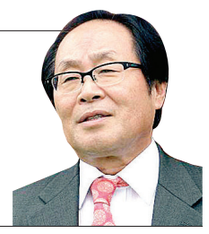
현불논단

다문화시대와 자비윤리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지구촌서 다문화 사회 균열 심각
정체성 약화 인한 사회분리 초래
폐쇄적 민족주의 · 부족주의 우려

공생적 정체성 가진 자아의식 형성
다문화 문제점 극복도 가능케 해
연기 바탕 자비 윤리 절실한 사회

지금 프랑스 전체가 격렬한 시위로 흔들리고 있다.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으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망한 소년의 할머니가 폭력 시위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한동안 다문화 사회의 전형적인 모범 사례로 거론되곤 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다문화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부족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의 틀 속에서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공동체적 관계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대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조너던 색스(Jonathan Sacks)가 지은 〈우리가 함께 짓는 집(The Home We Build Together)〉에 잘 나타나 있다. 2005년 7월 7일 런던 중심가의 연쇄 폭탄테러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입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테러를 한 무슬림 청년은 해외의 알카에다 조직이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영국 국적의 청년이다.

이 사태는 다양한 인종, 종교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겠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사태도 같은 경우이다.

색스 교수는 전체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였지만 정체성 약화로 인해 오히려 사회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초래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문화 사회를 '호텔로서의 사회'로 비유하고 이민자를 호텔 투숙객으로 비유하고 있다. 즉 격리된 다문화 사회일 뿐이지 '다문화적 공동체'는 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 한국도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 유학생 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속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도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의 건설을 두고 일부 기독교 신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서구인과 이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호감을 느끼면서 동남아 등 경제 후진국 사람과 이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꽤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하면 '부족에의 회귀' 현상이 일어나 사회통합의 큰 장애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향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생적 정체성'을 가진 자아의식의 형성에 있다. 이것을 '열린 정체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세계화 사회는 타자와의 만남의 광장이 확장되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자신의 자아는 타자와 공생할 수 있는 정신적 여백을 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비 윤리이다.

자비는 연기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하나의 그물코 안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의존적 상호 발생으로 보는 연기론적 윤리를 '상호 윤리(mutual ethics)'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자비 윤리이다. 자비는 평화와 배려의 최고 가치이다. 여기서 공생적 정체성과 열린 정체성이 나온다.

다문화 사회는 인류 진화의 착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에 역류하는 기운이 일어나고 타자에 대한 분별심이 미움과 차별로 변하고 있다. 참으로 붓다의 지혜와 자비가 절실한 사회이다. 불교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큰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불교와 불자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하겠다.

社 說

대학생 전법 활성화 마중물 되길

올해 한국불교 화두는 '전법'이다. 지난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밝힌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발원으로 '전법 활성화'의 화두가 공론화되기 시작됐다.

이 같이 자승 스님이 간절하게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로 살아가자"고 대중에게 설파한 것은 최근 한국불교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 징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다. 2004년 당시 24%였던 불교 인구는 2014년 22%로, 2021년에는 16%로 줄었다. 개신교 역시 2004년 21%에서 17%로, 가톨릭은 7%에서 6%로 감소했다.

2000년대 이후 종교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에 있다. 2004년 당시 20대 중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

계층포교 붕괴 상황…대학생 전법 복원 '환영'
"대학생 전법이 한국불교 중흥" 발원, 실천을

대는 31%, 2021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22%에 불과하다.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38%, 2021년 30%로 조사 때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30세대의 탈종교 현상 가속화에 사실 불교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간 세대전승도, 생애주기별 계층포교도 사실상 붕괴됐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상월결사가 사단법인을 창립하며 청년 포교를 제1과제로 삼은 것은 탁견(卓見)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상월결사는 조계종 포교원과 학교법인 동국대와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 전법위원 22명을 위촉해 전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5월 이후부터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을 위한 TFT 회의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지역과 계층 등을 아우르는 전국구 전법 조직체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서울과 경기 · 인천, 대구, 부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의 지역본부장으로 위촉됐으며, 24개 교구본사에서 추천된 284명 스님들이 지역 대학 전법을 책임지는 전법위원으로 나섰다. 각 분야 전문 출 · 재가자들도 전법위원으로 위촉됐고, 그 수만 574명에 달한다. 이날 출범식은 '역대급' 전법 조직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시작과 목표가 웅대했던 만큼, 사업 추진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젊은이들을 포교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을 벗어나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계획까지 촘촘히 세워서 정밀한 전략지침의 메뉴얼에 따라 포교전법을 해야 할 것"라고 했던 제언을 귀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불교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맞춤형 전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했던 구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법을 한다면 원력과 정재만 낭비할 뿐이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오늘의 출범식이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불교 중흥에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무너진 대학생 · 청년 전법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사부대중이 함께 할 전법의 여정이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대학생 전법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 존재의 중심

제 아무리 복잡한 일일지라도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착(歸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 자신은 곧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곧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으로써 일체의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은 이 우주의 중심이며, 나라는 것은 무한한 우주 속에 떠 있는 하나의 중심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놈은 꽤나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만사(萬事)는 편안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잘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마음이 들뜨거나 괴롭거나 흩트러지게 되면, 모든 일의 중심이 어긋나게 되고 결국 평화도 깨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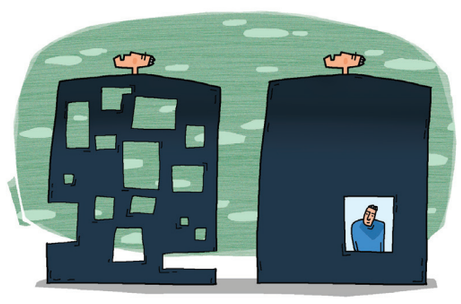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고요해집니다. 이때가 생명의 중심이 됩니다. 밖이 소란스럽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밖의 경계가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내면의 공간이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내면의 공간이 커질 때 창의력도 생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면 마음을 쉬라고 합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을 멈춘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뇌에게도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마음이 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금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 주위에는 어떤 일들이 모여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명상 수행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루 3분만이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수행을 해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